

# 전남도, 첫 국비 9조원 시대... 미래 발전 발판 마련

내년 국비 9조755억 확보 성과  
광주-영암 고속도 등 신규 110건  
남부권 광역개발 1단계 예산 반영  
김영록 "전남 대도약 동력 확보"

전남도가 사상 최초로 국비 9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전남도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안에 역대 최대인 국비 9조 755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2024년 확보 국고예산은 올해 8조 6525억원 대비 4230억원(증4.9%) 증가한 규모다. 지난 9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8조6021억원 대비 국회 심사단계에서 4734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다.

국비 9조원 시대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2.8%에 불과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궈낸 것이라 더욱 뜻깊은 성과로 평가받는다.

내년 국비 확보 주요 성과로는 미래 첨단전략산업과 차세대 에너지 분야의 핵심 사업을 다수 확보, 전남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서남권의 광주-영암 초고속도로(아우토반), 동부권의 CCUS(이산화탄소 포집)클러스터, 중부권의 광주-전남 첨단 의료복합단지 등 권역별로 경제 활성화를 이끌 신규 사업도 110건, 1612억원(총사업비 3조5000억원 규모)을 확보했다.

성장동력원인 신규 사업 예산확보는 전년 이어 2년 연속 100건이 넘는 성과를 기록했다. 주요 확보 예산은 화순 백신산업 특구 등 광주-전남의 바이오 인프라를 활용해 첨단바이오 신약에 특화된 글로벌 강소형 첨단의료복합단지 추가 지정을 위한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4년 국고 건의 정부예산' 반영 성과 관련 언론 브리핑을 갖고 있다. 전남도 제공

당성 조사비' 5억원을 비롯해 '장성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건설 타당성 조사비 3억 3000만원', '고흥 나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설계비 20억원', '영광 초소형 전기차 플랫폼 수요연계형 부품 기술 연구개발비 10억원' 등이다.

전남이 미래 에너지 발전을 선도하며 글로벌 에너지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도 다졌다. 주요 사업으로 '여수 국가산단 CCUS 클러스터 구축 타당성 조사비 5억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정부 출연금 200억원', '솔라시도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비 4억원', '나주 혁신도시 국립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비 2억원' 등이다.

전남도의 농어업을 디지털·스마트 수출

산업화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킬 예산도 다수 확보했다.

주요 확보 예산은 'AI(인공지능)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타당성 조사비 3억원, '목포 향토음식진흥센터 설치 설계비 5억5000만원', '완도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팩토리 구축 타당성 조사비 2억원', '해남 친환경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설계비 3억원' 등이다.

전남을 남해안권 관광·문화 중심지로 도약시켜 전 세계 유명 관광지화 경쟁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주요 사업으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1단계 사업으로 '나주 영산강 파노라마 관광명소 6억원', '나주-해남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 설계비 9억원', '여수 세계 섬 박람회

개최 사업비 8억6000만원', '호남지역 민속연구 활성화·역사 자원 보존을 위한 국립민속박물관 분원 건립 타당성 조사비 2억원', '순천 에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시설비 193억원' 등이다.

SOC 예산도 올해 1조572억원에서 14.4% 증액된 1조2093억원이 반영돼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망 구축을 계획대로 완성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주요 확보 예산은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공사비 4840억원',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공사비 2056억원',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 공사비 1054억원', '여수 화태-백야 도로 공사비 685억원', '별교-순천 주암 국도 27호선 확장공사비 378억원' 등이다.

여기에 전남과 광주를 하나로 묶는 광역교통망 완성을 위한 '광주-나주 광역철도' (총사업비 1조5192억원)와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총사업비 1조5965억원) 사업도 올해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본격 시작했다.

보다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어 거주 인구를 늘릴 안전·교육·체육시설 관련 사업 국비도 다수 확보했다.

주요 사업으로 '순천대 글로벌 대학30 사업비 100억원', '나주빛가람 어린이 체험센터 조성 10억원', '함평 교통안전 연구원 교육센터 건립 용역비 1억원', '영암 대불산단 안전체험 교육장 건립 설계비 1억원' (총사업비 150억원) 등이 반영됐다.

김영록 지사는 "2024년 국고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이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 발전의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2025년도 국고 확보에도 정부정책과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비고유 위 신규 사업을 조기 발굴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전남 대도약을 위한 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국고 확보로 국비 9조원 시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도움을 주신 우리 지역 출신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내년 국고예산에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활주로 사업 예산이 추가 확보돼 앞으로 확장 추세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활성화에 공동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미 광주시와 2025년 KTX 완공때까지 이전하기로 한 것에 대해 광주시와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무안공항 조기 활성화에 주력하자"고 독려했다. 최황지기자

## 광주시, 내년 1월 상무교차로 연결로 확장 개통

1개 차로→2개로 확대

광주시는 상습 교통 혼잡구간인 상무교차로의 차량 정체 완화를 위해 진출입 연결로를 확장해 내년 1월 중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무진대로 상무교차로는 무진대로 통행 차량과 수완지구 방면 진출입 차량의 간섭으로 인해 상습 교통혼잡 구간으로 꼽힌다.

특히 수완지구에서 시청 방면으로 진입하는 연결로는 1개 차로에 불과해 출퇴근 때에는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커 민원이 지속해 제기됐다.

이번 상무교차로 확장은 광주공항 외곽에서 무진로 간 도로개설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됐으며, 진출입 연결로 1개 차로를 2개 차로로 확장했다.

현재 마무리 포장공사가 진행중이며, 내년 1월 초까지 완료되면 중순에는 개통할 예정이다.

상무교차로가 확장 개통되면 차량 정체

와 교통 불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백 종합건설본부장은 "상무교차로 연결로 마무리 공사 때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사기간에는 인근 우회도로를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영원한 봄의도시, 베트남의 작은 프랑스마을 '달랏'

KAC 무안국제공항  
PACIFIC AIRLINES  
A Member of Vietnam Airlines Group

꽃길만차

무안 ↔ 달랏

999,000원~

3박4일(월) 오전출발 무안-달랏 07:05~10:05 달랏-무안 11:45~18:40

3박5일(목) 오전출발 무안-달랏 20:10~23:10 달랏-무안 22:40~05:35

기간 : 2023년 9월 28일 ~ 2024년 3월 28일

달랏 [홈계] ₩	달랏 [고급계] ₩	달랏 [나트랑/무안비]	달랏골프 [54홀]
999,000~	1,099,000~	1,049,000~	1,499,000~

월드투어센터 대표번호 070-3607-1134